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530-4780/ 팩스 02-536-5410	2020. 10. 15.(목)

제 목	115만 원만 추징되었던 357억 원 추징금 미납자 해외은닉재산 28억 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3조 4,000억 원대 사기죄 등으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115만 원만 집행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및 환수를 위한 강제처분 등을 진행한 결과,

미국 로펌에 예치된 은닉재산 253만 달러(한화 28억 7,588만 원)를 찾아 어제(10. 14.) 미국 로펌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예치금 전액을 공탁받았고, 향후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임

1 추징금 미납자

- A○○(58세, 前 가전회사 운영자)
  - '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징금 115만 원 집행

2 환수 경과

- '18. 12.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 분석자료 대검 통해 이첩
  - A○○의 미국 로펌 예치금 단서 포착

- ’19. 05. A○○ 관련 장소 압수수색
  -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이 미국 로펌 예치금 252만 9,588 달러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반환받기 위해 시도 중인 사실 확인
- ’19. 05. 법원에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추심 신청, 인용
- ’19. 10. 미국 로펌 한국사무소로 압류·추심 결정문 송달
- ’19. 11. ~ ’20. 10. 미국 로펌 측과 반환 협의
- ’20. 10. 14. 미국 로펌은 예치금 전액 28억 7,588만 원을 한국 법원에 공탁

3 향후 계획

-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환수를 위한 강제처분을 통해 고액의 해외은닉재산을 찾아 국내로 환수한 사례
- 향후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으로, 당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